

한양대학교 입학전형과 선행학습 영향 평가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와 방법은 2015학년도 보고서와 같이 다음 세 가지, 평가계획 수립과 사교육 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 노력으로 소개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는 2015년에 마련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제 규정 <표 I-1>을 바탕으로 자체 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자체 영향평가를 위해서 전임교원 및 교내전문가로 이루어진 내부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교육학자, 현장 교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선행학습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평가 일정 및 계획,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세부적으로 검토 및 입시 출제와 관련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대학별 고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후, 선행학습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영역별로 전형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다. 즉, 전형 결과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사교육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과정을 준수하였다.

<표 I-1>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한양대학교 규정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항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정의)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

에서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 각각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캠퍼스 입학처장으로 한다.
- ③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는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4명 이상,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④ 내부위원은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를,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고사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캠퍼스는 입학총괄팀장, ERICA 캠퍼스는 입학팀장으로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지급)

-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련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 캠퍼스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한양대학교에서는 2016학년도 입학생 선발을 위해서 다음 <표 1-2>와 같은 입학전형, 글로벌 인재전형과 논술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세 가지를 실시하였다.

<표 1-2> 2016학년도 한양대학교 입학 전형 유형

2016학년도 한양대학교 입학전형	구 분	대상 또는 계열
	수시 글로벌인재 에세이 전형	어학특기자(영어, 중국어, 독일어)
	논술전형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경계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어, 수학, 영어 구술 면접)

이와 같은 전형을 운영하면서 한양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출제 지침을 만들고 평가위원회 위원 및 출제자, 검토자 등 전형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 지침은 논술 및 글로벌 인재 전형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1. 고교생이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준비 가능한 난이도의 문제 출제
2. 고교 교육과정 내 문제 출제
3. 고교교사의 문제출제 참여를 통해 난이도 조절
4. 고사 시행 후 “출제의도 및 평가기준”에 출제근거를 반드시 명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대학별 고사 유형에 따라서 출제 계획을 마련하고 출제 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도록 사전에 교육하였다. 출제와 관련하여 다차원적으로 검토 경로를 마련하여 자체 평가위원회의 현직 교사,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출제 지침의 원칙에 맞게 문제들이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제시문은 최대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하여 출제하되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참고하고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 또는 ‘기호’를 사용하여 출제하거나 고교교사의 문제출제 참여를 통해 난이도 조절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침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하여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애썼다.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1) 한양대학교가 운영하는 고사 현황

한양대학교가 운영하는 대학별 고사 현황은 <표 I-3>처럼 논술과 면접,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가 운영되었는데, 그 중 영향평가 대상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고사는 제외하였다.

<표 I-3> 2016학년도 대학별 고사 현황

대학별 고사 유형	운영 여부	영향평가 대상여부	선발 인원	고사명	고사기간
논술 등 필답고사	○	○	503	논술 전형	2015.11.14~11.15
			101	글로벌인재(어학특기자)전형 1단계 외국어에세이	2015.10.10
			146	재외국민 필답고사	2015.7.18
면접·구술고사	○	X	101	글로벌인재(어학특기자)전형 2단계 외국어면접 (일반·인성면접)	2015.10.24
실기고사	○	X	245		2015.10.5.~10.23 (수시) 2016.1.7.~1.13 (정시)

2016학년도 전형에서, 수시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중심의 선발을 확대하고 수능을 면제하였다는데 특징이 있으며, 정시 전형의 경우는 수능 중심의 선발을 진행하였다. 논술 전형은 503명을 선발하였는데, 논술 50%와 학생부 종합평가가 50% 반영되었으며, 면접·구술고사는 글로벌 인재 영역에서 외국어 면접을 위하여 어학특기자에게만 실시되었다. 필답고사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가. 글로벌 인재(어학특기자) 전형

한양대학교는 입시 전형을 시행하면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모든 시험 마다 출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고사를 시행하였다. 다음은 독일어, 영어, 중국어 과목 순으로 2016학년도에 실시된 입학전형 고사 문항 제시 및 출제 의도, 채점 기준이다.

(1) 독일어 에세이 문제 예시

Lesen Sie zuerst den folgenden Text und die unten stehenden Aufgaben. Schreiben Sie dann einen Aufsatz in formellem Deutsch, der Ihre Gedanken so überzeugend wie möglich zum Ausdruck bringt.

Lars ist 14 Jahre alt und wohnt in München. Er geht aufs Gymnasium. Schon als kleines Kind hat er sich für Fußball interessiert. Deshalb spielt er in seiner Freizeit gerne Fußball. Dreimal in der Woche geht er zum Training in seinen Fußballclub. Er findet das gut, weil er sich da mit seinen Freunden treffen kann. Nach dem Fußball gehen sie meistens in ein Café. Seine Mutter findet das nicht so gut, weil er am Abend noch viel für die Schule lernen muss. Zum Glück mag sein Vater auch Fußball. Am Wochenende, wenn interessante Fußballmannschaften spielen, geht er mit Lars ins Stadion und sie sehen ein Spiel. Mit seiner Mutter geht er in die Berge wandern, weil sie die Natur und frische Luft liebt. Sie nehmen etwas zum Essen und Trinken mit, damit man wieder Lust hat, weiter zu wandern. Abends, wenn sie nach Hause gekommen sind, zeigt Lars seinen Eltern die Fotos, die er während der Wanderung gemacht hat. Das sind die schönsten Momente!

Patrick ist in seiner Freizeit meistens zu Hause. Da hört er gern Musik und spielt Computerspiele. Im letzten Sommer, als er 15 Jahre alt geworden ist, hat er in den Schulferien in einem Supermarkt gearbeitet und von dem Geld einen neuen Computer gekauft. Einen eigenen Computer wollte er schon immer haben. Sonst musste er immer seine Schwester bitten, ob er ihren Computer nehmen darf. Weil sie damit nicht immer einverstanden war, gab es oft Streit zwischen den Geschwistern. Und das will Patrick nicht mehr! Nachmittags kommen seine Freunde. Meistens bringen sie ihre neuen Computerspiele mit. Dann spielen sie ihre neuen Spiele zusammen. Sie essen viel Schokolade und trinken süße Getränke. Seine Eltern finden seine Freizeitaktivität nicht gut. Er wird immer fauler und dicker, weil er keine Bewegung hat. Sie würden es besser finden, wenn er Sport treibt. Aber das ist nicht das einzige Problem!

Auch Maya interessiert sich in ihrer Freizeit für ihre Hobbys. Meistens liest sie Jugendbücher, aber auch Bücher für Erwachsene, zum Beispiel französische, denn ihre französische Brieffreundin schickt ihr Bücher aus Frankreich. Als sie 16 Jahre alt war,

hat sie Nadine im Urlaub in Frankreich kennengelernt. Bei einem Museumsbesuch in Paris lernte Maya Nadine kennen. Und so sind sie sehr gute Freundinnen geworden. Sie schreiben sehr oft Briefe und telefonieren. Das ist sehr gut, weil Maya ihr Französisch trainieren möchte. Einmal in der Woche geht sie auch in die Bibliothek. Dort hat sie viele interessante Bücher und auch neue Zeitschriften, Zeitungen und CDs. Musik ist für sie wichtig, weil sie Klavier spielt. Maya hofft, dass auch Nadine sie in Deutschland besucht. Dann können beide Freundinnen durch Deutschland eine Kulturreise machen, abends einkaufen gehen und ein leckeres Eis essen. Ab und zu geht Maya mit ihren Freundinnen aus der Schule ins Kino. Am liebsten sehen sie Liebesfilme, weil sie so natürlich sind und fast immer ein glückliches Ende haben. Schmerz und Lust, Leid und Glück sind nah beieinander. Das ist nur was für Mädchen!

Aufgaben:

Welche Freizeitaktivität von diesen drei Jugendlichen finden Sie am besten und warum?

Wie verbringen die Jugendlichen in Korea ihre Freizeit?

Was sollte der Staat oder die Gesellschaft Ihrer Meinung nach tun, um das Glück der Menschen zu steigern

und den Wohlstand des Landes zu erhöhen?

Allgemeine Hinweise

1. Schreiben Sie auf Deutsch mit einem schwarzen Kugelschreiber oder einem schwarzen Bleistift.
Sie können einen Radiergummi benutzen oder Wörter mit einem schwarzen Stift durchstreichen und neu schreiben.
2. Sie haben 60 Minuten Zeit für Ihren Aufsatz.
3. Der Text sollte 400 bis 450 Wörter haben bzw. ungefähr 36 Zeilen umfassen.
4. Fangen Sie direkt an zu schreiben, ohne Ihrem Essay eine Überschrift zu geben.
5. Teilen Sie keine persönlichen Informationen wie den Namen Ihrer Schule, die Namen Ihrer Familienangehörigen usw. mit.

■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1. 출제 의도

이번 글로벌 인재(독일어) 전형의 Essay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부합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특수한 지식을 묻는 문제를 지양하였다. 또한 여러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수록된 주제뿐만 아니라 시사성 있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수험자들에게 소재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부각될 수 있는 화두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2. 평가 항목과 기준

(1)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가. 서론: 여가시간에 대한 젊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나. 본론: 한국에서 한국의 젊은이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보내는 여가시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 자기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다. 결론: 한국의 젊은이와 비교해서 여가시간에 대한 본인의 주장과 논리 그리고 그 근거가 잘 제시되고 있는가? 여가시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타당성 있는 적절한 논점에 이르고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사회의 역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잘 서술되고 있는가?

(2) 독창성과 논리성

가. 독창적 사고와 논리적 서술의 타당성

나. 논제 제기과정의 적정성

다. 주제 설정의 명확성

라. 내용과 문단 구성의 적절성

마. 에세이 서술의 통일성과 응집력

(3) 전체 구조

서론, 본론, 결론의 에세이 구성을 유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해와 소통(Kommunikative Gestaltung)의 관점에서 문장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도 함께 하는지 평가한다.

(4) 독일어 표현·문법·철자

문장론 Syntax, 형태론 Morphologie과 정서법에 따른 문장형식의 정확성 Formale Richtigkeit을 평가한다.

(5) 형식과 분량

지시사항(Allgemeine Hinweise)의 준수 여부, 분량 등을 평가한다.

3. 평가항목별 비중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독창성과 논리성	전체 구조	독일어 표현·문법·철자	형식과 분량
50%	30%	10%	10%	감점

*형식과 분량에 대한 감점은 변별기준으로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평가한다.

4. 종합 평가 지침

각 Essay를 전체적으로 A+, A, B+, B, Fail로 평가하면서, 위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의 총점을 90±6으로, 즉 84점~96점 사이에서 채점한다. 아주 우수한 Essay에 대해서는 97점~100점으로, 기준 이하의 Essay에 대해서는 80점~83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84점~96점 범위에 드는 Essay의 채점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가능한 1점 단위의 등위로 상대 평가한다.

종합 점수	A+ (100-97)	A (96-91)	B+ (90-84)	B (83-80)	Fail (59-50)
평가 내용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시키는 또는 그 이상으로 우수한 Essay	논제의 내용에 정합하고 평가항목을 거의 충족시키며, 생각이 심화 발전적이고(원인분석, 목적 지향) 논리적인 Essay	논제의 내용에 적절하고 평가항목을 상당히 충족시키며 논제에 대한 생각의 심화가 미흡한 Essay	논제의 내용이 부실하고, 평가항목 기준 이하인 Essay	-논제와 관계없이 피상적인 Essay -10행 미만

(2) 영어 에세이 문제 예시

Read the passages below and write an essay in English following the instructions provided below.

[A] In Hobbes's view on human nature, all mankind has the desire for "power after power," where power in this case stands for the means for attaining our good or the object of our desires. Many different kinds of things, the things that we think make us happy, are forms of power for Hobbes, in the sense that they enable us to fulfill our desires. Differences in custom and education and in bodily constitution cause differences in the passions, that is, in the desire for riches, glory, honor, knowledge, and so on. The cause of this is not always that a man hopes for a more intensive delight than he has already attained, or that he cannot be content with a moderate power, but that he cannot assure the power and means to live well which he currently possesses. To Hobbes, competition of riches, honor, command, or other power inclines to contention, enmity, and war, because the way of one

competitor to the attaining of his desire is to kill, subdue, supplant, or repel the other.

*enmity 적의 *subdue 위압하다 *supplant 탈취하다

[B] In sociology, the gaze is often thought to imply an unequal power relationship and an element of desire, and the male gaze directed at women is thought of as a specific and disempowering form of sight. Those with power are inclined to direct the gaze at those with less power. Power is often used in order to make others available for constant viewing and inspection, or to turn a person into an object. This may be illustrated in the way that the image of a female model in an advertisement tends to be perceived in society. More than just being an object of a gaze, the woman in the advertisement becomes what is being bought and sold. The message was always the same: for men, "Buy the product, get the girl"; for women, "Buy the product to get to be like the girl, so you can get your man." In this way, the male gaze enables women to be a commodity that helps the products to get sold. Likewise, advertising aimed at women engages in the mirror effect, wherein women are encouraged to view themselves as the male photographer views the model, therefore buying the product in order to become more like the model advertising it. The image being sold to men in the advertisement is that of an attractive girl while the image being sold to women is that if they buy the product, they, too, can be the recipients of male attention. Thus the image being sold, for both men and women, quite literally becomes that of the male gaze.

*disempower 권력(힘)을 빼앗다

[C] Historically speaking, the politicization of veiling among women in the Muslim world came about as a result of Western colonial discourse. Nineteenth-century British imperialists viewed the veil as the ultimate symbol of Eastern backwardness, and colonial measures against veiling were asserted in the name of women's rights. This "feminism," however, emerged as part of the development of a colonial narrative that emphasized the dominance of West over East, often giving an account of Islamic oppression of women based on misperceptions, or vague and inaccurate understanding of Muslim societies. The idea that other men in colonized societies beyond the borders of the civilized West oppressed women was to be used in the rhetoric of colonialism to render morally justifiable the project of undermining or eradicating the cultures of colonized peoples. The universalizing and homogenizing narrative of veiling set in place by the terms of colonial discourse sees all veiled women as oppressed, domesticated and rendered invisible.

*homogenize 동질화하다

Instructions:

Based on passages [A], [B], and [C], write an essay on "The human desire for power." In your essay you MUST address how the male gaze (depicted in [B]) and the imperialist view (depicted in [C])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Hobbes's view on human nature as described in [A]. You MUST also provide your own opinion on Hobbes's view (for exampl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Hobbes's view on the driving force of the desire for power, and why).

Directions for writing

1. Write in English with a black pen or pencil. You may cross out the text or use an eraser for corrections.
2. Complete your writing within 60 minutes.
3. The length should be within the range of 400-450 words, which approximately corresponds to 36 lines.
4. Start your essay without the title.
5. DO NOT include any information that reveals personal identity: your name, your school, your family members, etc.

■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1. 출제 의도

이번 글로벌인재 영어 에세이 시험에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부합하는 출제를 목표로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였고 논리적 추론과 분석능력 및 영어표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심화된 논리적 추론과 창의적 의견 제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권력 욕망에 대한 홉스의 견해를 응용하여 자본주의의 상품화 현상과 아랍 여성의 베일과 관련된 19세기 제국주의의 식민담론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홉스의 견해에 대한 응시자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논술하는지를 평가한다. 영어 지문은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그 문장의 난이도와 어휘 수준 등에 있어 수능 영어 시험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특정 전공이 두드러지는 주제를 배제하고, 응시자의 기본적인 수학능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는 추론과 분석 그리고 종합적 사고능력의 측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의도는 특히 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각종 주제에 대한 사전지식의 암기를 바탕으로 한 틀에 박힌 글쓰기 훈련을 강조하는 사교육 시장의 경향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에세이 시험은 공교육 과정을 통해 배양 가능한 기본적 학습능력과 향후 전공심화를 통해 발휘될 수 있는 잠재력의 측정을 지향하였다.

2. 평가 항목과 기준

본 에세이 시험의 응시자는 지문 [A], [B], [C]의 내용을 바탕으로 “권력 욕망을 향한 인간 본성”에 대해 지시문(instructions)에 따라 에세이를 쓰게 된다. 응시자는 에세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 자본주의 상품화 현상(지문 [B])와 아랍 여성의 베일과 관련된 19세기 제국주의의 식민담론(지문 [C])을 홉스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2) 홉스의 견해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응시자 자신의 의견을 논의하여야 한다.

(1)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

- a. 제시된 주제에 관하여 지문 [A], [B], [C]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하는지 평가한다.

- (2) Original Ideas and Logical Discourse :
 - a. 논지의 전개가 논리적인지를 평가한다.
 - b. 논지의 전개과정에서 독창적이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전체 구조 :
 - a.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전개되는지를 평가한다.
- (4) 영어 표현·문법·철자 :
 - a. 어휘 선택과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b. 문법, 구두법 및 철자법의 정확성을 평가한다.
- (5) 형식과 분량 :
 - a. 지시사항의 준수 여부와 분량 등을 평가한다.

3. 평가 항목별 비중

내용의 적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독창성과 논리성	전체 구조	영어 표현·문법·철자	형식과 분량
50%	30%	10%	10%	감점

*형식과 분량에 대한 감점은 변별기준으로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평가한다.

4. 종합 평가 지침

각 에세이를 전체적으로 A+, A, B+, B, Fail로 평가하면서, 위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의 총점을 90±6으로, 즉 84점~96점 사이에서 채점한다. 아주 우수한 에세이에 대해서는 97점~100점으로, 기준 이하의 Essay에 대해서는 80점~83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84점~96점 범위에 드는 에세이의 채점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가능한 1점 단위의 등위로 상대 평가한다.

종합 점수	A+ (100-97)	A (96-91)	B+ (90-84)	B (83-80)	Fail (59-50)
평가 내용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시키는 또는 그 이상으로 우수한 Essay	에세이의 내용이 논제에 적합하고 평가항목을 거의 충족시키며, 생각이 심화 발전적이고 (원인분석, 목적 지향) 논리적인 에세이	에세이의 내용이 논제에 부합하고 평가항목을 상당히 충족시키며 논제에 대한 생각의 심화가 다소 미흡한 에세이	에세이의 내용이 논제와 관련이 없으며, 평가항목 기준 이하인 에세이 -25행 미만	-에세이의 내용이 논제와 관계없이 피상적인 에세이 -10행 미만

(3) 중국어 에세이 문제 예시

阅读下面的资料，并按照要求作文：

[A] 文字是记录语言的书写工具，文字的使用打破了时间、空间的限制，扩大了语言的交际作用，为人类社会保存了可贵的文化遗产。我们发现的最早的汉字是三千多年前的甲骨文，发展变化到汉代，汉字的形体基本固定下来。但一个字有几种不同写法的现象，在汉字史上比较多见。为了减少文盲，让读写变得更容易，1956年中国发布了《汉字简化方案》，1964年出版《简化字总表》，主要是让笔画变少。简化的方法很多，主要用历史上已经出现的笔画少的古字、俗体字以及行书、草书中的字形等，来替换笔画多的繁体字和偏旁，如用“万”替代“萬”字、“爱”替代“愛”字、“讠”替代“言”旁等。也有一些新造的字，如用“惊”替代“驚”。

偏旁: 부수

[B] 现在简体字除了在中国大陆作为正式的字体使用以外，联合国对外发布的中文文本也用简体字，而且新加坡、马来西亚也用简体字。在香港、澳门简体字也越来越受到重视。随着世界其他地区来自中国大陆的留学、工作、旅游人员以及移民的增加，当地的中文书写与教学出现以简代繁，海外华人使用简体字也成为一种趋势。目前，繁体字依然是台湾使用的正式字体，韩国、日本也保留着繁体字的传统。

趋势: 추세

[C] 是不是需要使用汉字和汉字教育，在韩国一直有不同意见。韩国虽然在1948年出台了关于“韩文专用”的法律，但没有很严格的要求。因此一直到60年代末，实际生活中基本上是韩、汉字混用。1970年，汉字教育被完全废止，但受到很多批评，后来改为初中、高中的选修课。但因为不是必修课，又在实际生活中不大使用，所以并不被学生重视。80年代后半期开始，韩国的报纸、杂志上已经基本看不到汉字，“韩文专用”成为现实。但2014年韩国教育部计划，自2018年开始，小学三年级以上的教科书实行韩国语中的汉字词用“韩文、汉字同时标注”，如：학교(學校)。

* 废止: 폐지하다

作文要求：

请以“韩国的汉字教育”为主题，根据上面的资料，从语言功能、文化传承、实用性中选择两个以上的角度，阐述下面两个问题。请提出具体的理由来支持你的观点。

- (1) 你赞成不赞成2018年开始教科书上“韩文、汉字同时标注”的计划？
- (2) 如果实行这一计划，你认为标注繁体字好？还是简体字好？

写作考试统一要求

1. 用中文写作，用黑色圆珠笔或铅笔。需要修改时，可用橡皮擦或直接用笔划掉。
2. 写作时间为六十分钟。
3. 字数控制在450-500个字以内。
4. 不必书写题目，请直接开始本文。
5. 请不要在文中提到任何与作者相关的信息，如学校名称，家人的姓名等。

■ 출제 의도 및 평가 지침

1. 출제 의도

한자는 중국어의 문자이자 한국에서도 수천 년 동안 차용해 온 문자이다. 중국은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1956년 한자간화방안을 발표하고 필획이 복잡한 번체자보다 필획이 간단한 간체자를 사용해 왔다. 간체자는 중국 대륙의 공식 문자이자, UN 공식 문건의 자체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도 공식 한자로 사용된다. 번체자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던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에 반환된 이래 간체자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대만과, 한국, 일본은 번체자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는 1970년부터 한글전용정책의 강화로 한글전용이 거의 정착한 상태에서 나온 계획으로,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오랜 세월 동안 국민적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한글전용 대 국한문혼용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중국어 에세이 문제는 1)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2) 한자를 병기할 때 번체자로 써야할 지 간체자를 써야할지를 선택한 뒤 언어기능, 문화계승, 실용성 중 두 가지 이상 측면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둘 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 능력과 판단력 및 논술 능력을 측정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2. 평가 항목과 기준

(1)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답안은 아래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동등한 비중으로 논술되어야 한다. 두 문제 다 두 가지 가능한 선택에 대한 장단점을 엄밀히 비교하여 수험생 자신의 선택 이유를 논리적으로 명쾌히 서술해야 한다.

첫째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한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언어기능, 문화계승, 실용성 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의미과약, 조어능력 측면에서 한자가 유리하다는 주장과 한글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문화계승 또한 양면적이다. 한자를 알아야 고대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고대문헌 해독은 전문가에게 맡겨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한다. 실용성 면에서 한자를 알면 동아시아 다른 국민들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상용한자 몇 백자로는 필담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둘째는 교육의 일관성과 문화의 계승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번체자를 가르칠 것인지, 실용성과 시대의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간체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언어기능면에서 번체와 간체는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간체가 쓰기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전 문화 계승 면에서 번체가 선택될 수 있지만, 간체 또한 고대 이체자를 근거로 한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 단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실용성 면에서 한중간 급격히 늘어난 일적 교류를 감안하여 간체자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일본과 대만을 고려하여 번체를 교육해야한다고 할 수도 있다.

(2) 독창성과 논리성

에세이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문제는 의도된 정답이 없다. 정규 고교 교과과정을 잘 이수하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춘 학생이면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채점의 관건은 수험생이 자신의 선택 이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제시하는가이다. 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 기능, 문화 전승, 실용성 측면에서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판단한 결과를 조리 있게 서술하여야 한다. 또 문화 전승을 중시하여 번체자를 가르쳐야 할지, 실용성을 중시하여 간체자를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판단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독창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더욱 이상적이다.

(3) 전체 구조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로 비슷한 비중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각 질문에서 제기하는 문제마다 두 가지 선택의 장단점을 각각 분석한 뒤 최종 선택을 제시하여야 한다. 문제당 1-2문단, 총 2-4 문단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중국어 표현·문법·철자

논리만큼 중요한 평가 척도가 중국어의 표현 능력이다. 적절한 표현과, 정확한 문법, 정확한 한자 등 작문에서 드러나는 언어 구사 능력을 총점의 30%로 평가한다.

(5) 형식과 분량

450-500자일 경우 만점이다. 이보다 +/-10자 이내는 감점하지 않는다. 440-510자를 기준으로 이보다 +/- 20자씩 차이가 날 경우 순차적으로 1점씩 감점한다. 문자는 간체자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번체자로 작성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간체자에 번체자를 섞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단어의 수량에 비례하여 감점한다.

3. 평가 항목 별 비중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및 논지 전개	독창성과 논리성	전체 구조	중국어 표현·문법·철자	형식과 분량
30%	30%	10%	30%	감점

*형식과 분량에 대한 감점은 변별기준으로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평가한다.

4. 종합 평가 지침

각 Essay를 전체적으로 A+, A, B+, B, Fail로 평가하면서, 위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의 총점을 90±6으로, 즉 84점~96점 사이에서 채점한다. 아주 우수한 Essay에 대해서는 97점~100점으로, 기준 이하의 Essay에 대해서는 80점~83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84점~96점 범위에 드는 Essay의 채점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가능한 1점 단위의 등위로 상대 평가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p>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p> <p>ㄱ.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를 때.</p> <p>ㄴ.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를 때.</p> <p>ㄷ.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질 때.</p> <p>① 주인공이 총을 <u>가슴</u>에 맞고 죽자, 순희는 <u>가슴</u>을 치며 통곡했다.</p> <p>② 영화는 <u>눈</u>을 크게 뜨고, <u>눈</u>이 내리는 광경을 보였다.</p> <p>③ 영수는 한강 <u>다리</u>를 마침내 <u>제 다리</u>로 건넜다.</p> <p>④ 철수는 <u>배</u>에 타고서 <u>배</u>를 깎아 먹었다.</p> <p>4. 한글 맞춤법이 올바른 문장은? [3점]</p> <p>① 음식은 곱빼기로 주문할께.</p> <p>② 추석에는 햅쌀로 밥을 지어 차례를 지냈다.</p> <p>③ 나는 짹짹 김치찌개 하나면 밥한 그릇을 푹딱한다.</p> <p>④ 가위로 천을 싹싹 자르자, 아이들은 아깁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다.</p>	<p>㉠양화가 공자와 얼굴이 닮았다는 이유로 만세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격이다. 어찌 옛것을 전범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p> <p>그렇다면 새롭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세상에는 마침내 괴상하고 음란하며 치우친 글을 쓰면서도 두려움을 모르는 자가 생겨났다. 이것은 상상이 임시변통으로 쓴 세 길 되는 나무가 나라에서 쓰는 법전보다 낫고, 이연년의 유행가를 종묘 제악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격이다. 어찌 새롭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장차 어찌할까?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하나?</p> <p>아! 옛것을 전범으로 삼는 사람은 낡은 자취에 빠지는 것이 병통이고 새롭게 만드는 사람은 상도(常道)에 어긋나는 것이 걱정이다. 진실로 옛것은 본받되 변화를 알고 새롭게 만들되 법도에 맞는다면 지금 글이 옛글과 같은 것이다.</p> <p>6. ㉠에 가장 부합하는 사자성어는? [3점]</p> <p>① 복무쌍지(福無雙至)</p> <p>② 타산지석(他山之石)</p> <p>③ 아전인수(我田引水)</p> <p>④ 출장입상(出將入)</p>
---	---

본 전형에 대해서 한양대학교가 제시한 보도 자료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지원자가 본교의 학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시험 문제는 철저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EBS 교재와 연계하여 수험생들이 사교육 부담 없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제범위는 수능 영역 국어 B형, 수학 B형에서 출제하였다.

문제의 보편타당성과 난이도의 적정성을 고려하였고, 국어와 수학의 경우 난이도에 따라 문항별로 차등 배점하였으며, 전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통계 등을 참조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였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해서 문제의 배열을 달리하는 A형과 B형 두 유형으로 출제하였다.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의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출제 기준은 총 26문항(유형선택 1문항 포함) 중에서 객관식 22문항과 주관식 3문항을 난이도에 따라 3점, 4점, 5점으로 배점하였으며, 주관식 문항은 단답형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논술 전형

한양대학교의 논술 고사는 상경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로 시행되었다. 다음은 2016학년도에 실시된 논술전형 고사 문항과 출제의도, 채점 기준의 예시이다.

(1) 2016년 상경계열 논술 문항 예시

[문제 1] (가)에서 제시된 빈부격차에 관한 (나)의 문제의식을 기술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의 관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오. (500자, 50점)

(가)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개인 간의 능력 차이와 노력 여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의 불균형은 필연적이며, 이를 제 3자의 개입을 통해 강제로 조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지식과 능력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참가하는 게임이라고 간주해 보자. 게임의 참가자들이 정당한 규칙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여 승자는 높은 임금을 패자는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 반면에 게임의 결과가 평등해야 하므로 승자와 패자가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산물이다.

(나)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회를 지배하는 공정한 법칙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떤 계급 또는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회에 태어날지 모른다. 이러한 원초적 상태에서는 우리가 공정한 합의와 협상의 결과로써 정의로운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유리한 원칙을 내세울 수 없으며, 특정 공공정책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초적 상태에서 제안된 공공정책은 무엇을 추구할까? 타고난 자연적인 자질은 우수한 두뇌를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또한 개인은 서로 다른 사회적 여건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므로, 처음부터 서로 다른 부의 분배를 배정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은 태어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여건에 대해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타고난 조건에 부여되는 경제적 배분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남게 된다.

(다)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을 서로 단절된 개체가 아닌 하나의 유기체 안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인식한다. 특히 유가의 정명 사상은 나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로서 파악한다. 이러한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는 인간 존재의 특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삶을 영위하며 존재 의미를 찾는다. 이 때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가족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는 개인의 존재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개인의 자유도 공동체의 존재를 통해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로서 개인은 존립하기 어렵다.

개인에게 공동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하나, 개인이 반드시 공동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존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공동체는 개인에게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공동체와 개인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출제의도, 채점기준

○ <1번>의 출제 의도

이 논술 문제는 제 3자 개입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정당성을 추론하고 이를 근거하여 경제 성장과 분배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성찰을 요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이익추구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에 차등적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인해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과도한 빈부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사회 정의에 부합된다. 특히 이 문제에서는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롤스(Rawls)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정부 개입이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정의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나아가 소득의 재분배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시각에서는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위한 분배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가)에서 제시된 빈부격차에 관한 (나)의 문제의식을 분석하여 제 3자의 개입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사회적 합의에 입각한 정의라는 추론에 이르기까지의 수험생의 이해력과 분석력을 측정하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을 근거하여 (다)에 기술된 유기체적 인간관의 시각에서 경제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논하도록 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채점 기준

1. 평가의 내용

- (1) (가)와 (나) 지문을 정확히 읽고 소득의 재분배가 사회적 합의라는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
- (2) (다) 지문을 활용하여 개인의 이익추구와 소득의 재분배가 상호보완적이라는 내용을 도출하는 능력
- (3) 정확한 표현과 논리적 구성 능력

2.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 점
구성과 전개	(가)에서 제시된 빈부격차에 관한 (나)의 문제의식을 기술한 후(전반부 단락 250자 내외), 이를 근거하여 (다)의 시각에서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밝힌다(후반부 단락 250자 내외).	10%
내용 이해와 분석	(가)에 제시된 빈부격차에 관한 정확한 이해 ○공정한 경쟁의 결과 개인의 능력차이로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필연적임. 따라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분배는 불필요함.	20%
	(나)의 문제의식에 대한 정확한 설명 ○공정한 법칙이 도출되기 위한 가상의 조건에 대한 이해 ○소득의 재분배는 원초적 상태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인식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분배는 사회정의에 부합됨	30%
	(다)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통한 성장 ○사회적 합의로서의 분배 ○성장분배는 상호보완적	30%
논리와 표현	설명 내용의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및 문장 간의 논리적 긴밀성	10%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 ~ 85	 상-중-하 84 ~ 70	<C> 상-중-하 69 ~ 60	<F> 10 ~ 0
평가 내용	<p>① (가)를 읽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분배의 불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였다.</p> <p>②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분배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임을 정확히 추론하였다.</p> <p>③ (다)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익추구를 통한 성장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분배는 상호 보완적임을 정확히 제시하였다.</p>	<p>①~③ 중 두 가지 사항은 충분히 만족하였으나 나머지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함.</p>	<p>①~③ 중 한 가지 사항은 만족하였으나 두 가지 사항이 다소 미흡함.</p>	<p>- 논제와 상관없이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 - 200자 미만</p>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분량	450자 이상 550자 이내	550자 초과	400자 이상 450자 미만	350자 이상 400자 미만	300자 이상 350자 미만	250자 이상 300자 미만	200자 이상 250자 미만	200자 미만
	감점 없음	-2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15점
원고지 사용법· 어문규정	상 (0-1개 틀림)			중 (2-5개 틀림)		하 (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점		-3 ~ -5점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만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2016년 자연계열 논술 문항 예시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좌표평면에서 정수 m 에 대하여 직선 $y=mx$ 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frac{\pi}{6}$ 인 두 직선을 $y=ax$ 와 $y=bx$ 라고 하자. (단, a, b 는 서로 다른 실수이다.)

1 양의 정수 N 에 대하여, $a+b \geq 0$ 이고, $-N \leq m \leq N$ 인 정수 m 의 개수를 $f(N)$

이라 하자.

이 때 극한값 $\lim_{N \rightarrow \infty} \frac{f(N)}{2N+1}$ 을 구하시오.

2

양의 정수 k 에 대하여 부등식 $ab \geq k$ 를 만족시키는 정수 m 을 모두 구하시오.

.

두 직선 $y=x$ 와 $y=mx$ ($m > 1$)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θ 이고, 두 직선 $y=x$

3.

와 $y=cx$ ($0 < c < 1$)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frac{\pi}{3} - \theta$ 일 때, c 를 m 으로 나타내시오.

■ 출제의도, 채점기준

1.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고등학교 수학교과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에서 출제하였다. 자연계 오진 문제1번은 일차함수들의 관계를 통해서 삼각함수의 정의 및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성질과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세부적으로 탄젠트 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부등식을 이해하고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제한조건과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와 제한조건 하의 전체 정수의 개수의 비율에 대한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항과 두 직선들의 교각의 관계를 구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일차함수에 대한 이해와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의 적용을 통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종합적 사고는 수학적 사고능력의 배양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창

의적 사고력으로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자연과학과 공학은 물론 사회과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종합 평가 기준

문항	배점	세부 평가 기준	세부 배점
1	40	제한조건하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m 의 개수를 구했는가?	20
		수열의 극한값을 정확히 구했는가?	20
2	30	탄젠트 함수의 덧셈정리를 이용하여 ab 의 값을 구했는가?	15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구했는가?	15
3	30	두 직선사이의 교각의 탄젠트 값을 정확히 구했는가?	10
		c 를 m 으로 정확히 나타내었는가?	20

(3) 2016년 인문계열 논술 문항 예시

[문제]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에 드러난 두 입장에 깔려 있는 사고 틀의 한계를 비판한 뒤, (다)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과 그 사례를 제시하시오. (1000자, 100점)

(가)

근대 이전 전통 사회의 도덕 체계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성을 관별하고 유덕한 행위자의 형성에 관심을 갖는 A 윤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와 같이 구성원들이 유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회는 도덕의 구속력이 높아 A 윤리가 번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대두된 시민 사회는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와 달리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A 윤리로는 사회 통합이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다원화된 사회를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덕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B 윤리가 대두되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새로운 도덕 체계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고 구속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B 윤리는 각자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건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도덕적 요구 사항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금지 사항들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도덕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런데 A 윤리는 주관적 성격이 강해 행위의 유용한 지침이 되기에 불확실했다. 그래서 B 윤리는 그러한 A 윤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다원성에서 생기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의 도덕적 결정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B 윤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그 이전의 도덕 주체의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더군다나 규정된 의무 사항이나 금지 사

항 이외에도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들이 있음을 간과하고 말았다. 또한 B 윤리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며, 그것이 왜 정당한가에 대한 논거 제시에만 몰두하여, 도덕적 행위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행위를 유인하는 동기 부여에는 소홀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의무와 동기 사이의 부조화와 갈등, 즉 해야 하는 것과 행함 사이의 괴리가 불거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앎과 실천 또는 말과 행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최근 A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윤리학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도덕 체계를 검증한다. 하나는 도덕 체계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바람직하고 합당한지의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도덕 체계의 현실적 작동 가능성과 실현성 여부이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A 윤리보다 B 윤리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B 윤리는 인간의 도덕적 삶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의무 이외의 영역을 경시하게 되고 개인의 도덕적 창의성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적 선택 상황에 당면했을 때 딜레마에 봉착하여 고심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갖가지 유혹이나 외적, 내적 장애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나)

최근의 핵 폐기장이나 소각장 건립 문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 등은 이해관계가 다른 개인과 집단, 공동체 간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핵 폐기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과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어딘가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핵 폐기장을 건립해야 한다. 그것은 분명히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피해를 줄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갈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이익이 공익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공익도 증진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결과적으로 사회도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공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공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번영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사회를 벗어난 개인은 생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흔히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한다. 유기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별개의 의도를 갖고 개별적으로 작용한다면, 사회는 이미 유기체로서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오늘날은 다원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혈연 및 친족관계 등에 기초한 단일 공동체가 일반적이었던 예전의 도덕규범이 오늘날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과거의 윤리가 “우리가 남인가?”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라면, 오늘날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이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같은 층 주민들이 우연히 엘리베이터에 함께 올라 탈 경우, 서로는 얼마나 어색해지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인 이상, 주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갖가지 의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액수의 관리비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해야 한다든가, 정해진 날짜에 분류한 재활용 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든가 등의 규정이 그 좋은 실례들이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남’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촌’, 곧 하나의 공동체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의 문제는 이 아파트촌이 참다운 의미에서의, 그리고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공동체로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 놀이터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작은 공원길에 오물이 가득하다면, 나아가 윗집에 홀로 살고계신 할머니가 사망한 지 몇 주만에 발견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

■ 출제 의도

본 논술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모해온 도덕체계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에 맞는 윤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대에 맞는 도덕체계가 무엇인지 덕의 윤리와 의무 윤리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원화된 오늘날 그 개념을 새로운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로 출발하였다. 그 다음 참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개인 및 공동체 사이의 문제를 개인의 이익이나 공익이라는 사고의 틀 또는 이익만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도덕체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이끌어 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대의 아파트를 실제의 예로 제시하여, 바람직한 공동체에 맞는 도덕체계의 개념을 끌어내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및 <화법과 작문>에 근거하여 어떤 주제와 관련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출제하였다. 그와 관련한 필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와 화제 파악으로, 글을 읽을 때는 정보와 정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자신이 읽는 글이 어떤 화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둘째, 내용 요약 및 문단 간의 관계 파악으로, 글을 요약하여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여야 하고, 문단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글쓴이의 뜻이나 의도를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글의 요지 및 주제 파악으로, 요지는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파악하여야 한다.

문항의 구성은 비판적인 내용 요약을 통한 문단 간의 관계 파악 및 글의 주제 파악을 기본으로 하여, 추상적인 명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현실의 사례와 결부시키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시문들은 모두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것만으로 구성하였다.

1. 평가의 내용

- 1) 논의의 대상인 명제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요약 능력
- 2) 대립되는 사고의 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비판적 능력
- 3) 추상적 명제와 구체적 사례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

2. 분석적 평가의 영역, 세부 항목 및 배점

영역	항목과 핵심 내용	배점
구성 과 전개	(가)의 내용 파악을 통해 두 윤리의 특징과 한계 및 발전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도덕체계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문제점인 개인의 이익과 공익만으로 세상을 보는 사고의 틀(또는 이익만으로 판단하려는 시각)을 도출하여 (가)의 조화로운 도덕체계로 비판한 뒤, (다)에 제시된 아파트라는 현대 공동체의 모습을 활용하여 B 윤리를 기본으로 하되 A 윤리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도덕체계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5%
내용 이해	제시문의 이해 (가)에서 A 윤리가 나오고 그 한계로 인해 그 다음에 B 윤리가 등장하였는데, B 윤리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 A 윤리가 다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도덕체계의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였는가를 평가한다. (나)에서 하나의 현상을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입장과 공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만 바라보는 사고의 틀(또는 이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시각)을 파악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아울러 모집 단위에 따라서 공익을 B 윤리로 사익을 A 윤리로 분석한 경우에도 점수를 줄 수 있다. (다)가 (가)의 논지를 적용한 실제적인 예라는 것을 파악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0%
	논리의 연결 (가)에서 찾은 도덕체계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는가를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그 다음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나)에서 찾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만으로만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비판하였는가를 평가한다. 그리고 (다)의 제시문이 (가)의 적절한 실현이라는 것을 찾아 B 윤리를 기본으로 하되 A 윤리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5%
	문제의 해결 B 윤리를 기본으로 하되 A 윤리를 보완한다는 도덕체계를 기본으로 현대의 아파트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과 그 사례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5%
문장 표현	정확한 단어 선택과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문장 및 단락 사이의 유기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15%

3.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

종합 점수	<A> 상-중-하 100-95-90	 상-중-하 89-85-80	<C> 상-중-하 79-75-70	<F> 10-0
평가 내용	<p>① (가)의 내용 파악을 통해 두 윤리의 특징과 한계 및 발전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요약하였다.</p> <p>② (가)의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두 입장(이익)만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틀을 도출하여 비판 혹은 분석하였다.</p> <p>③ (다)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공동체와 그 사례를 제시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었다.</p> <p>④ 글의 형식과 내용 전개에 무리가 없으며, 문장 구사가 바르고 적절하였다.</p>	<p>①에서 ④까지의 항목과 핵심 내용 중 한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p>	<p>①에서 ④까지의 항목과 핵심 내용 중 두 가지의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p>	<p>- 한 가지만 충족하거나 논제와 상관없이 피상적 나열에 그친 경우.</p> <p>- 600자 미만.</p>

4. 형식상의 감점 내용

(1) 분량 및 어문 규범

길이	950자 이상 1,050자 이내	1,050자 초과	900자 이상 950자 미만	850자 이상 900자 미만	800자 이상 850자 미만	750자 이상 800자 미만	700자 이상 750자 미만	650자 이상 700자 미만	600자 이상 650자 미만
	감점 없음	-1점	-1점	-2점	-4점	-6점	-8점	-10점	-30점
원고지 사용법 어문 규정	상(0-1개 틀림)			중(2-5개 틀림)			하(6개 이상 틀림)		
	감점 없음			-1 ~ -2점			-3 ~ -5점		

(2) 내용 조직

-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2점
- 단락 내의 형식적·내용적 통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2점

5. 유의 사항

- 주어진 글에 나타난 구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은 감점 요인임.
- 원고지 사용법과 어문 규정을 적용하되, 감점 처리는 두드러지게 틀린 경우에 반영함.
-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2)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 분석

한양대학교에서는 2016학년도 입학생 선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글로벌 인재전형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논술전형 세 가지 입학전형을 실시하였다.

본 단락에서는 전형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각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제 근거를 분석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문항 분석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4>는 글로벌인재 전형에서 다뤄진 문항을 종합하여 출제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 표 I-4 >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글로벌 인재 전형’에 따른 출제 근거 분석

계열	출제 근거
수시 글로벌인재 (어학특기자) 영어ESSAY	[출제 지문 및 지시문 관련]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박찬구 외 9인). 천재교육. 단원 I. 서양윤리사상 Sub-Ch. 2.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p 150.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박찬구 외 9인). 천재교육. 단원 I. 서양윤리사상 Sub-Ch. 5. 현대의 다양한 윤리 사상. pp 197-199. 고등학교 사회문화(구정화 외 4인). 천재교육. 단원 I. 문화와 사회 Sub-Ch. 2. pp 102-107. 고등학교 사회문화(구정화 외 4인). 천재교육. 단원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Sub-Ch. 1 & 4. pp 132-135 & 148-159.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남궁달인 외 6인). 교학사. 단원 V. 문화와 윤리 Sub-Ch. 3. pp 270-279.
수시 글로벌인재 (어학특기자) 중국어ESSAY	고등학교 7종 검인정 중국어 교과서(임승규 11쪽, 박용호 8쪽, 최규발 10쪽, 박덕준 9쪽, 김난미 13쪽, 심형철 12쪽, 우인호 8쪽)에 소개 번째자와 간체자에 대한 설명. 손승철의 『동아시아사』에서는 갑골문(28쪽), 진나라의 문자통일(30쪽), 필담, 학문, 문화 교류 및 전승(106쪽)과 관련 내용. 최상훈의 『세계사』 갑골문(28쪽) 소개. 전통 문화 계승과 한글의 표음기능에 관한 내용: 김영순의 『사회문화』 103, 106, 115, 121쪽을 참고
수시 글로벌인재 (어학특기자) 독일어ESSAY	Deutsch I, 천재교육, 6과 Was machen Sie gern?(여가활동), 80~95 Deutsch I, 교학사, 5과 Mein Hobby ist Tennis.(여가활동), 77~92 Deutsch II, 서울시교육청, 3과 Freizeit der Deutschen(여가활동), 40~54 독일어 I 수능특강, EBS, 9과 취미와 여가생활, 73~81 법과정치, 천재교육, 9과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행복추구권, 82 생활과윤리, 천재교육, V-03 사회복지문제와 윤리, 190~191 사회문화, 교학사, IV-03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172~173 „Berliner Platz 2“. Langenscheidt, Einheit 19. Freizeitaktivitäten, 78-87 „Tangram aktuell 1“, Hueber, Lektion 5 Arbeit und Freizeit, 1-14

	„studio d“ Deutsch als Fremdsprache, Cornelsen, Einheit 4. Aktiv in der Freizeit, 60-67 „Ausblick 1“ Deutsch für Jugendliche und junge Erwachsene, Hueber, Einheit 3. Freizeit., 30-34
--	---

*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 외 기타 자료

글로벌인재(어학특기자)전형의 출제 문항 및 지시문의 내용이 공히 고교 교육과정의 영역과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다.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하였으며,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습하였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문과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자체 평가위원회에서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을 고려하였다. 첫째, 출제 문제가 고교 교과과정 성취기준에 맞는 수준의 문제인지 여부, 둘째, 제시문 및 어휘가 고교 교과과정 성취기준에 맞는 수준인지 여부, 셋째, 고등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할 수 있을 적절한 난이도를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표 I-5>에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하면 독일어, 영어, 중국어 에세이 모두 고교생이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준비 가능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제 지문이나 제시 내용이 친숙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어휘의 경우 주석을 달아 뜻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은 사고의 확장을 요구하였으므로 보다 학생들의 능력을 수준별로 측정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고려되었다.

주요한 기타 의견으로는 ‘수동적인 지식 습득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독서와 사고력 확장 활동, 교육과정과 결부된 시사적인 문제와 사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독창적인 문항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술 고사를 위한 시험의 형식과 내용 구성 및 평가 측정 요소들이 한양대학교의 특색을 갖추게 되었고, 확실한 기틀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표 I-5>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글로벌인재(어학특기자)’ 자체 평가위원회 분석 의견

기준	검토자들 의견(일부)
1. 출제 문제가 고교 교과과정 성취기준에 맞는 수준의 문제인지 여부	[독일어] ‘ <u>고교생이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준비 가능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한다.</u> ’는 출제지침에 부합하는 수준의 문제임. ‘Freizeit(여가시간)’은 고교 독일어 모든 교과서와 EBS 독일어 수능특강에서 매년 다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녀노소에게 매우 친숙한 주제임. 여가시간 활용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한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회복지제도’는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등 고교 사회탐구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제. 일상생활에서 거의

기준	검토자들 의견(일부)
	<p>매일 피부로 와 닿을 만큼 자주 언급하는 문제이며, 현대사회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는 삶의 질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음</p> <p>[영어] 금년도 영어 에세이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통합교과적 성격의 에세이 문항으로 사회교과의 '권력(power)'에 대한 지문으로 인간의 권력에 대한 본성을 다룬 지문과 사회현상 중 남녀의 사회적 인식이 매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지는가를 권력의 불평등으로 다루고 있는 지문, 그리고 이런 권력 및 성의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에 대한 글과 함께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지문들이 한 가지 주제로 서로 다른 지문을 통합해야 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됨. 수험생의 통합적 능력과 글로벌 인재 전형에 부합하는 쓰기 능력을 갖춘 학생 선발을 위한 적절한 지문들이 여러 교과에서 주제별로 선정되어 통일성 있게 조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p> <p>[중국어] 고교 교육과정 중 중국 문화, 중국어 개론 부분에서 간체자, 번체자 및 갑골문, 한자의 서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이전에도 EBS 수능 교재에서 문화관련 문항 속 제시문으로 한자와 관련된 문화 내용이 자주 등장함. 따라서 이번 중국어 에세이 문제는 고등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로서 지문 독해에 있어서 그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봄</p>
<p>2. 제시문 및 어휘가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는 수준인지 여부</p>	<p>[독일어]대학 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독일어시험의 출제기준이 되는 기본어휘 수준(700~800단어)에 맞춰 원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 독일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은 어렵지 않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제시문. 극히 일부 외래어나 합성어 또는 파생어가 있지만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논제를 파악하는데 전혀 지장이 주지 않는 범위이므로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음.</p> <p>[영어] 첫째, 본 시험의 제시문은 고등학교 사회교과(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바탕으로 수험생이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문임. 둘째, 영어지문에 사용된 어휘와 구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어휘와 구문으로 구성되어 복잡한 문장구조로 이뤄진 글은 아님.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되지 않은 어휘는 따로 단락별로 수험생이 글을 읽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주(별표)로 제공하였음.</p> <p>[중국어] 교육과정 내의 어휘를 사용하였으며,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어휘의 경우 주석을 달아 뜻을 제시하였습니다.</p>
<p>3. 난이도 분석</p>	<p>[독일어] 제시문의 수준이나 주제는 매우 평이하나, 제시문을 읽고 서술해야 하는 3개의 질문문항으로 구성된 논제는 난이도가 각각 다름. 3명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과 그 이유를 묻는 첫 번째 논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음, 여가시간의 필요성, 사회적인 의미 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복추구권이나 사회복지제도로 확장된 관점에서 서술해야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논제는 어려움. 따라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고교 교육과정과 결부시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측정해야 하는 에세</p>

기준	검토자들 의견(일부)
	<p>이 시험의 성격상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까다로운 논제까지 난이도 상중하로 적절히 섞어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성과 변별력에서 적합함</p> <p>[영어] 2016학년도 영어 에세이 난이도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습자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잣대로써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p> <p>첫째, 각 지문별 난이도는 어휘와 구문, 그리고 글의 소재면에 있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즉 지문을 읽고,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각 단락별 주제를 도출함에 있어 적정함.</p> <p>둘째, 에세이 답안 작성을 위해 주어진 두 가지 쓰기 과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단락별 주제 작성이 아닌 통합적 사고력이 요구되어지는 과업이 제시되었음. 즉, 각 지문별 연계성(상관성)을 도출해야하는 통합적 사고 및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과업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수험생에게 다소 난이도가 있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됨.</p> <p>즉, 수험생들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평이한 반응이 예상되는 반면, 답안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p> <p>[중국어]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의 문자인 한자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한국의 한자교육이라는 시사적인 문제까지 사고력을 확장시켜야 하는 문제임. 친숙한 소재이기는 하나 언어기능, 문화전승, 실용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근거를 찾아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평소 중국어 뿐 아니라 언어, 역사,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독서, 토론 등과 같은 심화 학습 활동이 요구됨. 따라서 이러한 자기 주도적 활동을 통해 실력을 쌓아온 학생이 아닌 경우, 답안의 내용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p>
4. 기타 의견	<p>[독일어] 한양대학교의 글로벌인재(어학특기자) 에세이 전형은 일선에서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외국어교육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전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u>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과 결부된 시사적인 문제와 사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독창적인 문항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u> 또한 서술형 지필시험에서 평가할 수 없는 인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면접시험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면접시간 확충 뿐 아니라 면접문항 개발을 위해 지필고사 못지 않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영어] 최근 2년간의 한양대학교 영어 글로벌 에세이 전형을 위한 모의 및 실전 논술 문항을 보며, <u>논술 고사를 위한 시험의 형식과 내용 구성 및 평가 측정요소들이 한양대학교의 특색을 갖추게 되었고, 확실한 기틀이 형성되었다고</u> 사려됨. 이는, 2015학년도 문항 출제에서 논의되었던 발전 방향을 2016학년도 모의 에세이 전형에 반영하여 수험생들에게 한양대학교 영어 에세이 전형의 방향을 안내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충실히 2016학년도 수시전형 에세이 문항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함.</p> <p>또한, 글로벌 전형에 부합한 학생들이 갖춰야 할 통합적 사고력과 영어 쓰기 능력(Literacy)을 평가할 수 있는 지문과 질문으로 에세이 시험이 구성되어 있어, 이후 시험에서도 학생들이 한양대학교 영어 에세이를 준비함에 있어 기틀이 제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p> <p>[중국어] 이번 중국어 에세이 문항은 단편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u>각 개인의 사고력, 논리력과 같은 지적 역량을 측정하기에</u></p>

기준	검토자들 의견(일부)
	적합.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난이도가 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하기에 적절. 이후 한양대 에세이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동적인 지식 습득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독서와 사고력 확장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계기가 될 것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 전형’의 국어(인문계열)와 수학(자연계열) 영역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검토한 <표 I -6>의 결과, 교과서와 EBS 방송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히 활용하여 출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 -6>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따른 출제 근거 분석

계열	출제 근거
국어 (인문계열)	<2004년도 개정된 표준어> 목록 참조 <독서와 문법>Ⅱ, 비상교육, 93쪽 참조 <독서와 문법>Ⅱ, 지학사, 23쪽 참조 <한글맞춤법> 제21항 참조 <EBS 국어B항>, 62쪽 참조 <EBS 국어B항>, 62쪽 참조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102쪽 참조 <독서와 문법>Ⅱ, 지학사, 58~68쪽 참조 <독서와 문법>Ⅱ, 미래엔, 155쪽 참조 <독서와 문법>Ⅱ, 미래엔, 155쪽 참조 <EBS 국어B항>, 72쪽 참조 <2000년 개정된 로마자표기법> 제6항 참조 <화법과 작문>Ⅱ, 교학사, 171쪽 참조 <화법과 작문>Ⅱ, 교학사, 171쪽 참조 <독서와 문법>Ⅱ, 지학사, 269~370쪽 참조 <독서와 문법>Ⅱ, 지학사, 269~370쪽 참조 <독서와 문법>Ⅱ, 지학사, 269~370쪽 참조 <EBS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B>, 84~91쪽 참조 <EBS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B>, 84~91쪽 참조 <EBS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B>, 84~91쪽 참조 <EBS 국어영역 문학B>, 48~50쪽 참조 <EBS 국어영역 문학B>, 48~50쪽 참조 <EBS 국어영역 문학B>, 48~50쪽 참조 <EBS 국어영역 문학B>, 128~130쪽 참조 <EBS 국어영역 문학B>, 128~130쪽 참조 <EBS 국어영역 문학B>, 128~130쪽 참조 <EBS 국어영역 문학B>, 205~208쪽 참조 <EBS 국어영역 문학B>, 205~208쪽 참조

계열	출제 근거
	<EBS 국어영역 문학B>, 218~219쪽 참조 <EBS 국어영역 문학B>, 218~219쪽 참조
수학 (자연계열: B형)	EBS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연속확률변수 EBS 수능특강, 수학 I, 로그함수 EBS 수능특강, 수학 II, 도함수의 활용 EBS 수능특강, 수학 II, 미분계수와 도함수 EBS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이산확률분포 EBS 수능특강, 수학 II, 도함수의 활용 EBS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조건부 확률 EBS 수능특강, 수학 II, 미분계수와 도함수 EBS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정적분의 활용 EBS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정적분 EBS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 타원 EBS 수능특강, 수학 II, 삼각함수 EBS 수능특강, 수학 II, 도함수의 활용 EBS 수능특강, 수학 I, 역행렬과 방정식 EBS 수능특강, 수학 II, 함수의 연속 EBS 수능특강, 수학 I, 수학적 귀납법과 순서도 EBS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 평면의 방정식 EBS 수능특강, 수학 I, 여러 가지 수열 EBS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 평면의 방정식 EBS 수능특강, 기하와 벡터, 직선의 방정식 EBS 수능특강, 수학 I, 그래프와 행렬 EBS 수능특강, 수학 I, 여러 가지 수열 EBS 수능특강, 수학 II, 미분계수와 도함수 EBS 수능특강, 수학 I, 역행렬과 방정식 EBS 수능특강, 수학 II, 로그함수

자체 평가위원회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출제문제 및 답안의 오류 여부와 출제문제가 고교 교과과정 성취기준(국어B형, 수학B형)에 맞는 수준의 문제인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근거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소개하면 <표 I-7>과 같다.

국어의 경우, 출제 문제의 답안 오류 여부에 대해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답 도출 및 해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서와 EBS 교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수준이 고교 성취수준에 적합함을 소개하였다.

또한 수학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제가 오류가 없으며, 고교 성취수준에 적합한 수준임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하였다. 단, 논의의 여지가 있는 수학 16번 문항의 경우,

문제가 고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이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분석해본 결과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난이도 측면에서 쉬운 문제에 대한 배점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점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I -7>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자체 평가위원회 분석 의견

계열	검토 내용	분석 의견
국어 (인문계열)	1. 출제문제 및 답안의 오류 여부	24번 문항의 경우는 굳이 답을 고르게 되면 2번밖에 해당되지 않음. 이 작품의 경우 중의적인 의미를 사용하거나 점층적인 상황의 전개에 의해 시적 분위기가 조성됨. 또한 내용 역시 존재의 극한 상황인 한계에서 화자가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언 몸 그대로를 눈보라 속에 놓이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고통스럽게 토로하고 있음. 이미지의 활용으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단순히 눈보라가 흰색의 이미지로 차가움을 드러낸다고 해석한다면 틀린 설명을 아님
	2. 출제문제가 고교 교과과정 성취기준 (국어B형)에 맞는 수준의 문제인지 여부	전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와 EBS교재를 적절히 섞었고 지문의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u>고교 교과과정 성취기준에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u> 다만 난이도 면에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학생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u>문법의 경우</u> 지난 번 모의시험보다 12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쉽게 풀었을 것 같고 나머지 문학이나 비문학의 경우는 문제나 지문 모두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경우 어휘를 제외하고는 내용 파악 문제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비문학의 경우 언어관련 지문은 대상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u>전체적으로 보면 적정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u>
	3. 기타 의견.	비문학이 언어와 관련이 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례입학에 해당되는 시험문제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 고전에 있는 좋은 글을 지문으로 해서 출제하면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더 우리 고전을 접할 기회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학 (자연계열: B형)	1. 출제문제 및 답안의 오류 여부	A형과 B형 모두 출제문제 및 답안의 오류는 없음.
	2. 출제문제가 고교 교과과정 성취기준 (수학B형)에 맞는 수준의 문제인지 여부	16번 문항의 제외하고 그 외 문항은 성취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의견	1) 문항 16번. 문제에서 벡터를 변환시키는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고교과정에서는 일차변환에서 점을 변환시키는 것만 다루고 있음. 문제의 상

계열	검토 내용	분석 의견
		<p>항 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이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판단됨.</p> <p>2) 주관식 문제가 3문제 출제 되었는데, 26번 문제에 대한 <u>배점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 높음</u>. 26번 문제의 배점은 4점으로 했어야 한다고 판단됨.</p>

다음 <표 I-8>에서 인문, 상경, 자연 계열에서 출제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교과서와 EBS 방송 수능 교재가 어떻게 연계되고 다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다.

<표 I-8> 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논술 전형’에 따른 출제 근거 분석

계열	출제 근거
상경계열 1번 문항	<p>[제시문(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남궁달화 외, 교학사) 교과서, 207쪽, 노직(Nozick)의 정의관 <고등학교 경제>(김중호 외, 씨마스) 교과서, 43쪽, 자본주의 체제하의 사적 이윤 추구의 정당성에 적용</p> <p>[제시문(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변순용 외, 천재교육) 교과서 185쪽, <EBS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90쪽, 롤스의 정의론</p> <p>[제시문(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남궁달화 외, 교학사) 교과서, 192-194쪽, 전통 사상의 유기체적 인간</p>
상경계열 2번 문항	<p>[1번 문항] 미적분과 통계기본, (주)박영사, 우무하, 함수의 극대·극소와 그래프/함수의 최대·최소, 68-74</p> <p>[2번 문항] 미적분과 통계기본, (주)박영사, 우무하, 넓이, 117-122</p> <p>[3번 문항] 미적분과 통계기본, (주)박영사, 우무하, 함수의 극대·극소와 그래프/함수의 최대·최소/넓이, 68-74/117-122</p>
자연계열 (오전)	<p>[1번 문제]</p> <p>교과서 수학 I (두산동아, 우정호), 수학 I (천재교육, 최용준) - 교과서 세부단원: 수열의 극한 - 두산동아: p. 190-195, 천재교육: p. 180-184</p> <p>교과서 수학 II (교학사, 황석근), 수학 II (금성출판사, 정상권) - 세부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분수부등식),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 교학사: p. 28-32, 38-52, 금성출판사: p. 29-36, 43-51</p> <p>EBS 교재, 수능특강 수학 I B형: 수열의 극한, p. 106-109</p> <p>EBS 교재, 수능특강 수학 II: 부등식, 삼각함수, p. 14-23, 26-34</p> <p>EBS 교재, 수능완성 수학 B형: 수열의 극한, 부등식, 삼각함수, p. 46-51, 64-65, 71-77</p> <p>문항 1: 분수부등식,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문항 2: 분수부등식,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수열의 극한 문항 3: 분수부등식, 삼각함수의 덧셈정리</p>

계열	출제 근거
	<p>[2번 문제]</p> <p>[1문항] 적분과 통계-(주) 교학사 순열과 조합, 확률-확률의 뜻과 활용-여사건의 확률</p> <p>[2문항] 적분과 통계-(주) 교학사 통계-확률변수와 확률분포-연속확률변수와 확률밀도함수, 적분법-정적분-정적분의 뜻과 성질</p> <p>[3문항] 적분과 통계-(주) 교학사 통계-확률분포-평균과 표준편차-연속확률의 평균과 표준편차, 적분법-정적분-정적분의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p>
<p>자연계열 (오후<1>)</p>	<p>[1번 문제]</p> <p>고등학교 수학 I, (주) 고려출판 - 무한등비급수 p. 176 고등학교 기하와 벡터, (주) 교학사 - 일차변환의 합성 p. 24 EBS 수능완성 (2015) - 수학B형 실전편 p.37 문제 13번</p> <p>[2번 문제]</p> <p>[1문항]적분과 통계 -(주) 교학사, 적분과 통계-적분법-정적분의 활용-도형의 부피</p> <p>[2문항]수학 II -(주) 금성출판사, 함수의 극한과 연속-함수의 극한-극한값의 계산</p> <p>[3문항]적분과 통계-(주) 교학사, 통계-확률분포-평균과 표준편차-연속확률의 평균과 표준편차, 적분법-정적분-정적분의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p>
<p>자연계열 (오후<2>)</p>	<p>[1번 문제]</p> <p>문항 1: 교과서 기하와 벡터 (지학사 이강섭 외 3인) - II 이차곡선 - 2. 타원, p.57 타원의 정의, 성질, 방정식. p.61 타원의 평행이동, p.68 종이접기로 만드는 타원</p> <p>문항 2: 교과서 기하와 벡터 (교학사 김수환 외 13인) - II 이차곡선 - 2. 타원, p.53 타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판별식</p> <p>문항 3. 2016학년도 수능대비 EBS 수능특강 수학영역 기하와 벡터 - p.53 대표기출 문제</p> <p>[2번 문제]</p> <p>교과서 적분과 통계 (미래엔, 유희찬), 세부단원: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p. 36-42, 58-70</p> <p>교과서 적분과 통계 (좋은책 신사고, 황선욱), 세부단원: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 p. 39-42, 54-63</p> <p>EBS 교재, 수능특강 적분과 통계: 정적분, p. 40-47</p> <p>EBS 교재, 수능완성 수학 B형: 적분법, p. 112-123, 실전편: p. 18-25</p> <p>문항 1: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의 계산과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이용한 함수 계산 및 최댓값을 계산하는 문제</p> <p>문항 2: 곡선과 직선들로 둘러싸인 영역을 회전하여 얻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p> <p>문항 3: 곡선과 직선들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p>
<p>인문계열 (오후<1>)</p>	<p>[제시문 (가)]</p> <p><EBS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B형>의 117쪽, 덕의 윤리와 의무 윤리 내용</p> <p><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박효중 외, 교학사) 교과서, 150-159쪽, 덕 윤리와 의무</p>

계열	출제 근거
	윤리 [제시문 (나)]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Ⅱ>(송기한 외, 교학사) 교과서의 160쪽, 설득을 위한 글쓰기 <고등학교 논술>(박인기 외, 교학사) 교과서의 160쪽, 개인이 우선인가, 사회가 우선인가에 관한 논쟁 [제시문 (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Ⅰ>(이남호 외, 비상교육) 교과서, 126쪽, 비판적 독해 내용
인문계열 (오후<2>)	[제시문 (가)] EBS 수능 특강 국어 영역 (B형) 300쪽, 육망의 삼각형 구조에 대한 르네 지라르의 설명 요약 [제시문 (나)] 인간사랑, 57~61쪽,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일부 내용 변형 및 재구성 [제시문 (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예: 천재교육 사회·문화, 103쪽, 금성출판사 사회·문화, 106, 107쪽),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내용 토니 모리슨의 소설 <가장 푸른 눈>(들녘, 33~34, 60, 65쪽)

* 교과서 및 EBS 수능 연계 교재 외 기타 자료

한양대학교 논술 고사는 제시문과 출제 문항이 모두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의 경우,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데 어려움이 없는 내용을 다루었으며,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술 고사는 상경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에서 치러졌다.

상경계열 논술 1번 문제는 제 3자 개입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정당성을 추론하고 이를 근거하여 경제 성장과 분배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성찰을 요구한다.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롤스(Rawls)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설명하였다. 논술 문제 2번은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고등학교 수학 I과 미적분과 통계기본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평범한 문제이다. 다항함수의 미분을 이해하고 극점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 주어진 다항함수의 증감여부를 판별하는 문제와 다항함수의 적분 및 그 역함수의 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종합적인 문제이다.

자연계열의 논술고사 역시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에서 출제하였다. 자연계 오전 1번 문제는 일차함수들의 관계를 통해서 삼각함수의 정의 및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성질과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일차함수에 대한 이해와 삼각함수의 덧셈정

리의 적용을 통해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종합적인 문제이다. 오전 2번 문제는 조합, 확률, 확률변수의 개념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정적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하에 관한 지식은 직선의 기울기, 원의 넓이 뿐이므로 기하에 관련된 학생들의 부담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후 1의 1번 문항은 고등학교 수학교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에서 출제되었으며, 행렬과 일차변환과의 관계, 일차변환에 의한 곡선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문항은 EBS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문제를 약간 변형하여 출제하였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해서 EBS 수능특강과 EBS 수능완성 교재를 충실히 공부를 한 수험생이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오후 1의 2번 문제는 정적분과 확률변수의 개념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된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오후 2의 1번 문제의 경우, 고교수학교과정 중 ‘기하와 벡터’의 ‘이차곡선’ 단원에 속하는 내용인 타원의 방정식을 중심으로, 좌표평면에 있는 원, 타원, 다각형, 직선 등의 도형들에 대한 주어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인 곡선을 분석하고, 정보를 적절히 해석, 적용하고 정확한 논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요구한다. 오후 2의 문제 2번은 정적분으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함수를 구하고, 함수로 만들어진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와 이를 회전하여 얻어진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로 고등학교 수학교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적분단원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이상과 같이 수리 논술은 수학적 사고능력의 배양과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논리적 사고와 응용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였고,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인문계열의 논술고사의 경우는, 인문 오후 1번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및 <화법과 작문>에 근거하여 도덕체계와 바람직한 공동체 윤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지, 어떤 주제와 관련된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문 오후 2번 문제는 인간의 욕망이 가진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징이 문화 공존의 시대에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지문의 구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수험생에게 익숙한 EBS 교재와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널리 알려진 인문학 저서 및 소설의 일부 내용을 변형,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종합하면 글로벌 인재전형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논술전형 세 가지 입학

전형에서 출제된 문항을 고교 교과과정 성취기준에 적합하도록 맞는 수준인가 여부, 제시문 및 어휘의 수준, 난이도가 적절한 문제인지를 고려하여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분석, 평가하였다.

그 결과, 한양대학교는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즉,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고사에서 언급된 수학 문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고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내용이었다. 이 수학 문항의 경우 일반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 풀이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자체 평가위원회에서는,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보다 충실히 기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부 분석 결과 고교 과정을 벗어난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출제 문항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한양대학교는 계속해서 엄밀한 검토, 분석으로 보다 개선된 대학 차원의 입학 전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논술 고사를 위한 시험의 형식과 내용 구성 및 평가 측정요소들이 한양대학교의 특색을 갖추게 되었고, 확실한 기틀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양대학교의 교육 목적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양대학교는 논리적 구성력과 창의력을 평가하려는 논술 평가의 출제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사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독창적인 문항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출제 노력과 평가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향후 입학 전형을 위해서 더 개선된 방향, 교육부의 출제 방향을 준수하는 입학 고사를 진행할 것이다.